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다테마에(建て前)와 혼네[本音]

대표적인 일본인의 행동양식으로 일컬어지는 다테마에(建て前)와 혼네(本音)는 분명 일본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, 나름대로의 생성 이유를 가지고 있음

□ 일본인의 대표적인 행동양식

-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다테마에(建て前)와 혼네[本音]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표현임
- 다테마에는 겉으로 들어나는 극히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말과 행동을 뜻하고 혼네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본심으로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의 마음으로 풀어볼 수 있음
- 이러한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일본인 자신들은 흔히 공적(公的)인 행동이 사적(私的)인 관계와 대립하는 것을 표현하는 오모테(表)와 우라(裏)와 유사하다고 설명함
- *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면서 일본인의 다테마에와 혼네는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
- *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 대하기 어렵다고들 함

□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다테마에와 혼네

- 다테마에와 혼네는 외국인에 의한 일본연구의 지침서가 되어있는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‘국화의 칼’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
- 베네딕트는 국화 재배의 비술(秘術)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칼을 숭배하는 일본인의 양면성을 국화와 칼에 빗대어 설명함
- 매우 절제되고 겸손한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는 국민이 동시에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애를 돌리는 호전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음
- * 하지만 베네딕트는 그러한 양면성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일본 문화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했음

□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규범

-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은 개인의 주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집단내의 대립을 피하고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희생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와 집단의 단결을 강조함
- 사회규범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일본인은 어릴 때부터 다테마에를 정면으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음
- * 그 결과 많은 경우 상대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지만,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식구조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- * 일본인은 진심을 털어 놓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보다는 표면적인 원칙만을 강조하는 쪽을 택하는데,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기 때문임
- 특히 이질적인 문화의 융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국제무대에서도

일본사람들은 싫어도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종종 받음

- 상대의 부탁에 대해 사실은 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노(NO)라고 확실하게 말하여 거절하지 못함
- 거절을 뜻하는 답변으로 ‘마에무키니강가에마스(前向きに考えます,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)’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같은 일본사람들끼리라면 상대의 표정과 말투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뿐 외국인은 반대의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

* 이렇듯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 거절당하면 배신감마저 느끼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며 이는 항시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본사람의 대인관계의 습관에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음

□ 국제화에 변화하는 일본인의 행동양식

- 1989년 초에 현재 이시하라 신타로(石原愼太郎)와 소니 회장이었던 모리타 아키오(盛田昭夫)가 같이 쓴 ‘노(NO)라고 할 수 있는 일본’이라는 책이 300만부 이상 팔리며 히트함
- 그 동안의 미일관계에서 약한 모습만을 보였던 일본이 이제는 큰 목소리로 ‘아니다’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물론 당시는 일본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의 자본이 일본으로 집중되고 일본이 가진 자본력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때임
- * 이렇듯 혼네를 감추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통용되기는 어렵고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일본은 변하고 있음